논어 14편 헌문 6장 · 원문·풀이

南宮适問於孔子曰：「羿善射，奡盪舟，俱不得其死然。禹稷躬稼而有天下。」夫子不答。南宮适出，子曰：「君子哉若人！尙德哉若人！」

독음 · 남궁괄문어공자왈 예선사 오탕주 구부득기사연 우직궁가이유천하 부자부답 남궁괄출 자왈 군자재약인 상덕재약인

쉬운 풀이(요약) · 무력으로 이름난 예와 오는 비명에 죽었지만 우와 직은 농사에 힘써 천하를 얻었다는 남궁괄의 말에서 공자는 덕을 높이는 태도를 칭찬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南 남녘 남 남 / 宮 굴궐 궁 궁 / 适 빠를 괄 괄 / 問 물을 문 문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孔 구멍 공 공 /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羿 사람이름 예 / 善 착할 선 선 / 射 궁술 사 사 / 奡 오만할 오

盪 씻을 탕 탕 / 舟 배 주 주 / 俱 함께 구 구 / 不 아닐 불

得 얻을 득 득 / 其 그 기 / 死 죽을 사 사 / 然 불사를 연 연

禹 하우씨 우 우 / 稷 기장 직 직 / 躬 몸 궁 궁 / 稼 심을 가 가

而 말이을 이 / 有 있을 유 / 天 하늘 천 천 / 下 아래 하 하

夫 지아비 부 부 / 答 젖을 답 답 / 出 날 출 출 / 君 임금 군

哉 비로소 재 재 / 若 같을 약 약 / 人 사람 인 / 尙 오히려 상 상

德 큰 덕 덕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